

“진도 가사도 뱃길 끊기면 안됩니다”

보조금 환수 결정에 중단 위기 “절차만 따져...주민 고통 외면 안돼” 섬 주민들, 권익위 현장조사서 호소 권익위, 국토부에 ‘민원 수용’ 주문

“생존권을 위협받는 주민들의 고통은 어랑곳하지 않고 절차만 따져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19일 진도군 가사도, 국민권익위원회 강제영 상임위원 등 조사단 4명이 ‘여객선 건조 보조금 환수로 뱃길이 끊어질 위기’(광주일보 3월 11일 7면)에 놓인 가사도를 방문, 현장조사에 나서자 섬 주민들은 “여객선 운항이 또 다시 중단되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조사단의 가사도 방문은 진도군의 ‘예산 불법 전용’에 따른 보조금 환수 결정으로 뱃길이 끊길 위기에 놓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주민들을 만난 국민권익위 현장조사단은 “권익위는 진도군이 내린 행정처분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계기관에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진도군 민에게 면목이 없다”면서 “진도군의 적극행정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조사단은 또 “섬지역 주민들이 여객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상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일이다. 가사도 뱃길이 다시 끊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가사도 주민들은 지난 2015년 3월 여객선사 적자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돼 대파와 툇 등을 소형 선박으로 출항하다 좌초되기도 했고, 생필품 구입과 응급환자 이송에 3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진도군은 도서개발사업비의 급수선 예산으로 여객선을 건조해 2018년 12월부터 운항을 재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진도군이 급수선 예산 사용을 위한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여객선 건조에 사용한 보조금을 환수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가사도 주민 140여명은 ‘여객선이 끊어지면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집단 민원을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여객선 건조는 주민들의 생계 유지와 안전을 위해 불가피했던 점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와 협의 없이 항로가 중복된다고 판단한 점 ▲현재 급수선을 건조해 운항하고 있는 점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보조금 환수 처분은 무효에 해당되는 점 등을 들어 선박 건조에 지급된 보조금 환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자 가사도 주민들은 ‘여객선 운항이 또 다시 중단될 경우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국민권익



강재영 상임위원 등 국민권익위 현장조사단이 지난 19일 진도 가사도를 방문, ‘여객선 건조 보조금 환수 관련 주민 민원’을 조사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위에 지난 11일 집단 민원을 냈다. 주민들은 ‘가사도 다목적 선박 보조금 환수 조치 취소·중단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즉시 수용’을 요구하는 건의서와 가사도 주민 209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주민들은 건의서에서 “갑자기 운항이 중단된 선박부터 우선 건조할 수 있도록 도서 지원 제도가 달라져야 한다”며 “생계 위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진도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보조금 반환 시 재정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사 결과 보조금을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을 즉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진도=박형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신안 서태환·김서운 부부 장학기금 1000만원 기탁

신안군은 최근 지도읍 봉리에 거주하는 서태환·김서운 부부가 지역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신안군장학재단에 1000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씨 부부는 “35년 넘게 연안어업을 하면서 서태환이 발전하며 살기 좋은 곳으로 발돋움하는 신안의 모습에 자긍심을 갖는다”면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신안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생각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장학기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안군장학재단 이사장인 박우량 신안군수는 “개인인 1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흔쾌히 기탁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면서 “지역 사랑이 가득 담긴 두 분의 뜻에 감사드리며 지역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장애인고용공단·전남도 등 장애인 일자리 지원 업무협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최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남도,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전남지역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과 장애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장애인 취업희망자 발굴 및 정보 공유,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축 및 교육 환경 제공, 장애인과 장애인기업 취업 연계 활동에 협력한다.

특히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구직자를 위해 기업체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채용 사업체에 고용장려금과 근로지원인 배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완도군, ‘어촌뉴딜300사업’ 8곳 선정...3년간 713억 확보

노화 솔지항·금당 가학항 등 어촌 기반시설 현대화

완도군은 올해까지 3년간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사업’에 8개소가 선정돼 총 사업비 713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의 혁신 성장을 돕는 지역 밀착형 생활SOC 사업으로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 개발을 위해 추진된다.

2019년에는 노화 솔지항과 금당 가학항이 선정돼 104억원을 확보했다.

노화 솔지항에는 여객선 접안장 보강 사업과 대합실 신축 등 여객선 기항지 정비 사업을 추진하며, 선착장 및 물양장 보강 등 어항시설도 구축한다.

금당 가학항은 가학 해안로 안전시설 확충, 어민 행복복지센터 리모델링, 행복 놀이터 조성 등 주민 생활여건 개선 사업과 어민 품앗이터 조성, 선착장 접안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금일 신구항, 군외 당인항, 신지 명사항, 청산 모도항 등 총 4개소가 선정돼 408억원을 확보했다. 선정된 어항에는 방파제, 물양장 확장 등 어항 시설을 기본적으로 구축하며, 금일 신구항에는 청년 쉼터 및 귀어 센터, 주부 쉼터 ‘어



2019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완도 소안 미라항 전경. <완도군 제공>

가자’, 어린이 공부방 ‘꿈터’ 등을 조성한다. 군외 당인항에는 청년 귀어센터 및 어르신 복지 시설 조성, 어부집 정비, 마을 꽃길 등을 갖는다. 신지 명사항에는 부잔교 설치, 명사항 관리센터 조성 등 어항시설 정비 사업과 물놀이 어항 공간, 재활용 예술 공원, 주민 치유센터 조성 등 주민생활 여건 개선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청산 모도항에는 대합실 신축 및 여객선 접안장 보강, 차도선 부두 조성 등 여객선 기항지 정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해조류 공동작업장, 명때미 해변공원, 게스트하우스 등도 조성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2020년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생활SOC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약산 어두항, 소안 미라항 등 2개소가 선정돼 201억원의 확보한 상태다.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파제-물양장 보강, 여객선 기항지 정비, 어민 쉼터 조성 등과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마을 기업을 꾸려, 지역 특산물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등을 추진해 어촌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 약산 관산방조제 국비 29억 들여 개보수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는 올해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대상 지역으로 완도군 약산면 관산지구가 새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방조제 개보수는 노후 방조제를 보강해 시설물의 파손을 방지하고 바닷물의 유입으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1997년 준공된 관산지구 방조제는 노후화에 따른 누수로 염도가 급격히 상승해 농업용수로는 사용이 어려워진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농어촌공사해남완도지사는 현장정점·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전남도와 농림식품부에 발파르게 대처해 등 방조제 개보수 사업지구로 선정되는데 기여했다.

관산방조제 개보수는 국비 29억원을 투입해 사석 보강, 배수문 보강 등이 진행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205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